

# Bayer, 농약살충제 금지 “부당”

2007년 7월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 Temik은 Bayer 매출 4위

EU(European Member)가 2003년 3월 Bayer의 Aldicard Insecticide(농약용 살충제)인 Temik의 사용을 금지 키로 했다.

세계보건기구는 Aldicard의 독성을 1A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Pesticides Action Network과 같은 환경단체들은 수년간 Aldicard 폐지 캠페인을 벌여왔다.

EU의 결정으로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및 영국의 Aldicarb 사용기한은 2007년 7월로, 그 외 EU 국가들의 사용기한은 2007년 말까지로 정해졌다.

Temik는 Bayer의 농약매출 가운데 4위를 차지하며 40개국의 매출이 1억5000만달러에 이르는데 미국 등 유럽 외 지역은 Temik 사용금지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Bayer는 Temik의 사용금지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대체제가 없어 판매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ldicard는 수면에 남기 때문에 새나 물고기에 유독하지만 인체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없다.

Aldicard는 당근, 감자, Parsnip, 사탕무 및 순무를 포함한 작물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남부유럽에서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고 프랑스가 최대 시장이다.

Bayer는 Aventis CropScience를 인수함으로써 Aldicard 제품기술을 획득했다.

한편, 유럽위원회는 활성성분 약 900개에 대한 평가를 2008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Chemical Journal 2003/08/12>